



2013 '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100인 기부 릴레이가

4월에 진행됩니다.

*** 100인 기부 릴레이는?**

100인 기부 릴레이는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고,
주변 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달리는 릴레이 경주처럼 4월 1일 이꿈이의 기부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매일 한 명씩 주자들이 이어 달립니다.
조성된 기금은 이 땅의 모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여성공익활동에 지원됩니다.

*** 이꿈이가 써나가는 올해의 이야기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 100명 이상의 주자들을 참여시킨 '릴레이 고수'
-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이꿈이들이 참여한 '한 지붕 세 가족'
- 전년도에는 부진했지만 올해에는 열정적인 행진을 보여주신 '역전의 명수' 등

이꿈이 모집기간 2013년 2월 25일~3월 25일
 이꿈이 참여조건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가족, 단체 및 기업 등)
 문의 및 신청 Tel. 02-336-6364



특 집 칼 럼 **멀고 가난한, 그녀들의 친정**
 함께만드는 변화 **성평등사회를 향한 일상적 변화의 기획**
 나눔과 공감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
 용돈을 동결하고 인상금액으로 또래 친구를 도와요

딸들에게 희망을

2013. 1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 및 편집인 조형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3년 1월 31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448-17)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오렌지(02.2277.9234)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로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비영리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3 사립문 변화의 시대 그리고 여성리더십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특집

04 칼럼 멀고 가난한, 그녀들의 친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안전망인 쉼터 지원 확대를 바라며

함께 만드는 변화

07 성평등사회를 향한 일상적 변화의 기획
 2012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눔과 공감

- 10 기부하는 모금가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회장
- 12 이야기가 있는 나눔 용돈을 동결하고인상금액으로 또래 친구를 도와요
 고사리손 기부자 최인, 최하늘 기부자
- 14 이 여자가 사는 법 이 시대 청춘의 표상에 청춘의 특권으로 답하다
 한국여성재단 W.C 기자단 20대 3인방을 만나다
- 15 문화로 나누는 이야기 그들도 드라마처럼

소식

- 16 재정보고
- 18 후원현황
- 20 재단소식

COVER STORY 밤

45.5x53cm, 한지에 혼합재료, 2012, 임영숙
 [이미지 제공 : Gallery Epoque]

우리가 매끼마다 접하는 밥을 소재로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작가 임영숙. 밥 위에 놓인 들꽃이나 새싹, 팥 등의 소재를 통해, 그녀의 작품에는 아침밥으로 시작해 저녁밥으로 마감하는 일상 속에 피고 지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생명을 생명답게 영위하게 해주는 생명 그 자체로서의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그 밥 속에 놓여진 아름다운 생명체인 꽃을 통해 희망, 생명, 기원과 복의 의미를 보는 이에게 선사한다.



사립문

변화의 시대 그리고 여성리더십

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셨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도모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만족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 재단의 사업은,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성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단순 복지성 지원보다 그들이 자긍심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 키우기,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리더십 키우기 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든든한 개인 기부와 기업 사회공헌입니다. 모금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여성대통령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처음인 '여성대통령'을 맞으며 기대와 우려가 반반입니다. 대통령이 엄중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를 게 없지만, 여성이기에 더 잘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례로 2005년 독일 총리로 취임하여 국내에서는 사회 통합과 탈핵 정책을 당차게 밀고 나가면서 유럽연합의 실질적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을 보면서, 여성 국가 수장은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통치방식에서 균형감과 유연한 협상력, 사회적 합의 도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적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남성중심적 사회의 여성리더는, 너무 눈에 잘 띄는 가시성 때문에 혹은 여성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염려해서, 여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명예남성'이 되어 권위주의적 리더로 처신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나라의 '여성' 대통령은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화를 당연히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폭력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뒤로 하고 성평등 시대의 막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국가적 노력에 더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달라"던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 구절처럼, 우리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재단은 올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기부자와 지원대상자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고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차분히 그리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여성재단 가족 여러분의 계속적인 사랑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2013 여성재단"의 사립문을 활짝 엽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형

멀고 가난한, 그녀들의 친절

이주여성의 사회적 안전망인 쉼터 지원 확대를 바라며



결혼생활을 해본 이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TV에서 결혼한 연예인들이 사소한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 겪어야 했던 갈등들을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보편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감대는 그것만이 아니다. 여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꼭 친구나 친정을 제일 먼저 찾는다는 것. 길고 긴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때로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시키거나 내 편에서 배우자를 설득시켜주고, 위기 상황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사람들과 공간들. 그것은 여성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준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 형성된 다문화 가정은 언어와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제약,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 결혼에 대한 기대격차, 남편과의 세대차이, 시부모와의 고부갈등 등 선주민간의 결혼생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문화적 감수성이 부재한 사회 분위기 속

에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인의 정서와 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 동화와 적용만을 주장하게 되기 쉽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남편에게 더 많은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고 그 결과 생활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워진다. 반면 이주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지지 기반이 없는 까닭에 결혼의 지속 혹은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폭력을 감추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초기 갈등단계에서 상담의 개입이 중요하며, 갈등의 완충지대인 '친정'으로서의 '이주여성 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는 2008년부터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폭력과 갈등해결 및 재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여성쉼터를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 쉼터 지원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5개의 쉼터가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한국여성재단은 2010년부터 정부 및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쉼터들에 대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012년에는 여



기에 더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현재 이주여성쉼터는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의하면, 2010년 한해에만 가정폭력관련 4,682건, 쉼터관련 1,826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나는 이주여성이다, 21p). 여기에 성폭력관련 상담건수와 언어적 폭력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비해 현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이주여성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18개소, 시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3개소로 전국을 모두 합쳐 총 21개소이다.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주여성쉼터 18개소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2개소가 위치하고, 그밖의 지역에는 권역별로 1개소씩만 있는데 그나마도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이나 도심외곽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쉼터 종사자들은 빈자리가 없어서 해마다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을 연계할 곳을 찾는 것이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2년 동안 이주여성쉼터에 대한 지원예산의 증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지역 현장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시설 인가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해당 지자체나 소관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관리감독과 예산마련 문제 때문이다. 한 쉼터 관계자에 의하면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인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비로소 시설 인가를 해주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앙부처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지자체가 먼저 자기네 예산을 써가면서 하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괜한 민원이 생기는 것도 싫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늘어나는 게 싫고 그런 거지요.”

상황이 답답한 것은 어렵게 시설 인가를 받았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쉼터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시설 인가를 받은 기관이므로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의료 및 법률지원, 상담지원과 숙식 제공 등 정부지원 쉼터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 없이 입소자의 생계비부터 의료, 법률지원비, 출국지원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제반 비용을 스스로 알아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 후원 확보가 필요한데, 쉼터의 특성상 시설 등을 외부에 개방할 수 없는데다 정부 미지원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후원자 확보가 어렵다. “어떤 곳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 인가증이란 다 보여주었는데도, 정부지원을 안 받는 것을 보니 공식 기관이 아닌 것 같다고 후원을 취소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십 원이라도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보니 당장 입소자인 이주여성들과 아이들

의 기본적인 주식비 마련부터 고민인 경우가 많다. “쌀이 없어서 전전공급할 때도 많고, 겨울철 난방비만 해도 감당하기가 좀 힘들죠. 아이들이 있는데다 최근에는 영유아가 많은지라 난방비가 꽤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쉼터 운영자의 집에서 가져다 먹고, 친정에서 가져다 먹고 하다가 인원이 10명이 넘으니 감당이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이라도 먹일 수 있으면 다리 뻗고 자겠다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요.”

이주여성쉼터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시설 인가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은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자체가 50~70%의 구성비로 매칭 펀드를 통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모두 이주여성쉼터의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 지원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쉼터 운영을 인가해 준 것이니 지자체에다 달라고 해라 그러고, 지자체에서는 쉼터 예산은 국고예산과 지자체 예산의 매칭 펀드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주면 주겠지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줄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자체 시의원들은 중앙부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시비를 먼저 주려고 하느냐는 입장인 거지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눈치 보기와 이해관계 속에서 그 피해를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현장의 쉼터 활동가들과, 지칠대로 지친 심신을 달래러 찾아온 이주여성들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 걱정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그저 외면할 수 없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일인데...”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걸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지원 시설에 비해 부족함 없게 지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다. 그녀들의 친정이 모두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제도적으로 그녀들의 결혼 이주를 지원하고 장려해 온 대한민국이 폭력피해를 입은 그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친정’ 이야말로 가난한 살림살이를 힘겹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수용력 때문에 고국의 친정보다도 더 방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여성쉼터 3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을 추가 확충한 2013년 정부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확충된 예산이 미지원 이주여성쉼터가 아닌 지자체 지원시설들에 우선 지원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린다. 부족하더라도, 예산지원 확대 소식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매년 조금씩 확대되기를, 그리고 민간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친정이 되어주느라 발 벗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쉼터들이 좀 더 넉넉한 여유와 웃음으로 그녀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



성평등사회를 향한 일상적 변화의 기획

2012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국내 기부문화 조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복지)에 대한 기부자들의 선호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복지)지원사업은 대체로 기업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기금’은 매해 여성을 지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모인 대표적인 배분사업 기금이다. 2012년 ‘성평등사회조성기금’은 14개 단체들의 사업에 나뉘어져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평등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원되었다. 그 시도들 중에서 유쾌하고 흥미로운 도전 두 가지를 소개한다.

이주여성이 직접 제안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 건강,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더욱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서비스와 지원들이 무엇

인지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검토와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그리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공공기관이나 선주민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짐작하여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주여성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주여성 활동가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주체가 되기 위한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기획, 추진되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찾아내기 위해, 158명의 이주여성들이 총 13회에 걸쳐 ‘이주민 불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토론된 결과를 살펴보니 너무나 기본적인, 그래서 조금만 관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반말하지 말기, 국적

을 받은 상태인데도 여권발급이나 행정처리를 요구할 때마다 남편 동행을 요구하는 관행의 개선, 약국에서 이주민에게 약을 제조해줄 때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손들라고 하거나 별도 교육 자리를 너무 자주 마련하지 말기, 다문화가정은 꼭 김치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기 등 소소하고 구체적인 불편 사항들과 바람들이 제기되었다.

이주 여성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 사항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62곳의 총 566명의 현장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구청이나 시청, 경찰서, 법원, 학교, 보건소 및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기본적인 안전, 건강, 행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한 행동이 이주여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거나, '막연하게 이주여성들이니까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법원 관계자 및 판사들에게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의 이혼시 한국과 본국에서의 신고절차를 조사하여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법원에 배치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프레젠테이션의 제안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공공기관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약자로 취급되었던 것을 나의 견해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활동소감들은 현재의 아쉬움에 대한 실망보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해준다. 그녀들이 자신

들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2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여자, 몸, 춤추다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부인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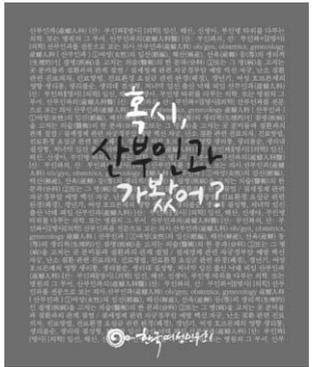
지만 여성들이라면 적어도 한번 즈음은 이 산부인과에 대한 불쾌한 경험이나 심리적 위축감들을 주제 삼아 친구들과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을 만큼, 산부인과는 여성들에게 뭘지 모르게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극복 대상이다. 그것이 산부인과 진료자세 때문이든, 사회적 시선이나 의료진의 태도 때문이든 말이다. 더욱이 여성건강과 관련,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편견들이 덧대어진 겹겹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에게 자세히 안내받을 기회란 그리 많지 않다. 여성건강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도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산부인과와 여성들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을까?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제대로 된 정보가 잡히지 않고, 당당히 질문하고 제대로 된 답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위축과 가부장적 진료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2년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라는 다소 도발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산부인과'라는 공간은 병원

이기 때문에 꼭 자주 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플 때는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던져진 질문. '여성들은 산부인과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가?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를 위해 총 1,067명의 산부인과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UCC와 책자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부인과의 진료문화가 보다 여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출산하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비혼 여성, 나이든 여성, 십

대 여성, 성소수자들에게도 접근하기 쉬운 공간이 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이 제안되었다. 그 중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일독하기를 권한다. 『혹시, 산부인과 가봤어?』



2013년 100인 기부런레이는 4월에 진행합니다

필요정보 습득 이유에 대한 사전설명과 서면작성을 제안합니다.

* 산부인대를 이용해본 여성들이라면 한번 즈음 경험이 있겠지만, 많은 산부인과에서 진료 전 성관계나 낙태 경험 등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너무나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두로 질문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진료상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어떨까? 그리 어려운 실천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다.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이는 우리 의료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성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비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통로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부인과에서조차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닐까?

대학(종합)병원 산부인과 진료시 수련의 동행에 대한 사전공지와 설명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해서 대학(종합)병원 산부인대를 이용하려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여러 명의 수련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료받은 경험은 과담처럼 떠올리지만 빈번한 실제 사례들이다. 이에 대한 사전공지와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요구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현실이 씁쓸하다.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회장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생협 운동

김연순 회장이 처음부터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운동에만 관심이 있어온 지라 먹는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보였다. 그러던 그녀가 생협 강의를 접하고 나서 그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생협 운동이 내 가족의 건강만이 아니라 내가 유기농배추 하나 사서 먹으면 유기농 땅이 한 평 더 생기고 농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후 조합원 다섯 명을 어렵게 모아 활동을 시작한 90년부터 지금까지 김연순 회장은 먹을거리, 환경 분야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이후, 대기업들이 폐기해야 할 곡물을 수입해 이유식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분노케 했던 일은 김연순 회장을 생협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했다.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분석하고 방사능 기준치를 정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반대했다. 생협운동은 생명의



가치와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는 운동이 되었다.

여성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가 되다

최근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는 <행복중심생협>으로 단체명을 바꿨다. 조화, 협동,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생협과 함께 하려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생협’이라는 마인드가 사라진 건 아니다. 조합원 99%가 여성이고 여성민우회의 성평등 가치는 고스란히 스며있다. 대의원총회나, 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 다양한 워크숍이나 모임은 여성학강의나 치유프로그램이 있어 인기가 높다. 단순하게 소비자와 생산자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게 <행복중심생협>의 가장 멋진 브랜드가 아닐까.

이미 1999년부터 일본의 <생활클럽생활연합회>, 대만의 <주부연맹생활소비합작사>와 <아시아자매회의 Asia Sisterhood International Meeting>-아심^{ASIM}이라는 이름으로 심포지엄과 문화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생협

의 <성평등교육>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작년 7월, 김연순 회장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여성일자리를 위한 마련, 풀뿌리 복지사업을 지원해 여성권익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서울시가 수여하는 <서울시 여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가치있고 쉬운 기부, 함께 누리는 기부

김연순 회장은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에 5년간 이끔이로 참여한 성실한 기부자이다. 게다가 첫 해를 빼고 4년은 내내 완주한 성과 높은 모금가이기도 하다. 기부를 요청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의미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는데 거절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손해지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기부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니 손해라는 논리다. 모금 거절에 무안해하지 않고 또 마음에 쟁여 놓지 않는다는 김연순 회장은 기부를 요청할 때 거절당할 거란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자신이 활동하는 행복중심 생협에서 2011년 모금을 통해 <행복복지기금>을 마련했다. <행복복지기금>은 기부자맞춤모금이다. 매일 1천원, 5천원, 1만원 단위로 세분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그 행복을 이웃사회에 전파하자’는 모금

의 취지에 많은 이들을 참여시켰다. 그 결과 매년 1천만원 규모로 고령자를 위한 사업, 육아사업, 맞벌이부부를 위한 사업,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친환경 상품이 생산되면 생협의 유통망을 통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순은 따뜻하다

2013년 3월, 김연순 회장은 오랜 활동의 장인 행복중심생협 회장의 임기를 마친다. 그러나 그 후에도 협동조합운동에 관심 가진 이들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활동생애의 변화가 없는 대신, 개인 신상의 변화를 꿈꾸면서 말이다.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꾸미지 않은 수더분한 머리와 외모로 일관해온 그녀가 이런 변신을 생각하고 있다니! 여기에 더해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뜨개질과 드로잉, 목공을 배우고 싶고, 악기도 다루고 싶고, 운전면허도 따고 싶고... 묵혀온 바람들을 차분히 꺼내놓는 그녀가 새해에는 진정 해갈의 기쁨을 맛보기를 기대한다.

따뜻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김연순 회장. ‘여성 생협’ 하면 떠올릴 넘버 원 인물이지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니로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W**

인터뷰 · 글 백진영(프리랜서 작가)



용돈을 동결하고 인상금액으로 또래 친구들을 도와요.

고사리손 기부자 최인, 최하늘 기부자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어린 기부자들이 있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콩쿨 수상으로 받은 상금, 웹사이트 여기저기서 모은 콩, 댓글을 달아 모은 100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기부금을 모은다. 한국여성재단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전개하는 고사리손기금 기부자들의 특징은 형제·자매가 함께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인터뷰의 주인공도 최인, 최하늘 형제 기부자이다. 그 중에서 최인 기부자와 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Q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광덕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학교 밴드부에서 일렉기타를 맡고 있는 최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 하늘이는 영광의 성지송학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Q 요즘 무엇에 관심 있나요?

A 저(최인)는 요즘 진로고민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기타연습과 축구게임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Q 방학일 텐데,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A 오늘이 방학 첫날이라서 아직 즐거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인터뷰는 1월 중순에 진행되었다). 그냥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면서 방학 기간을 보낼 계획이고, 하늘이는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Q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되었나요?

A 처음에는 어머니의 소개(강요^^;)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0인 기부 릴레이는
4월에 진행됩니다

Q 기부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현재는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주세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기부를 할 거예요. 작년에 기부를 결정할 때 용돈을 동결하고 올리기로 한 만큼의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Q 만일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기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쓴다면 어디에 쓸까요?

A 1년간 모으면 큰돈이지만 한 달씩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어서 PC방이나 노래방 가는 데에 썼을 것 같은데요.

Q 기부를 하고 나니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요?

A 저희에게는 한 달에 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돈을 기부하여 좋은 곳에 쓴다고 생각하니 돈의 가치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용돈이 늘면 저희는 좋지만 용돈이 줄어든 만큼 저희에게는 다른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Q 기부금으로 아시아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보훈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훈섬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방문하여 컴퓨터 등을 기부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부한 돈이 보훈 섬의 친구들에게 전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웠습니다.

Q 고사리손기금에 함께 기부했다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A 아이돌들이 앞장서서 기부를 한다면 우리 청소년도 기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경우처럼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기부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기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W

Q 고사리손기금이란? 고사리손기금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보내온 기부금으로 아시아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2013년에는 필리핀 보훈섬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복, 학용품,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대 청춘의 표상에 청춘의 특권으로 답하다

한국여성재단 W.C 기자단, 20대 3인방을 만나다

최근 청춘의 실종이니 꿈을 잃어버린 세대이니 하며 비판받던 20대를 위로하는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반증하듯 한국사회에서 최근 20대 청춘의 이미지는 무겁고 우울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빡빡한 아르바이트와 학원 수업 일정들을 조정하여 간신히 만나게 된 그녀들의 첫인상만 하더라도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20대 청춘의 표상에서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다가, 버릴 수 없었던 글쓰기에 대한 꿈을 찾아 다시 대학에 진학한 지선, 마찬가지로 창작에 대한 미련때에서 부모님께 한마디 상의 없이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내고 문창과에 다시 입학한 다솔, 취업이 보장된 학과의 4학년 졸업반에 치과의사를 꿈꾸며 치대입학을 다시 준비하는 수희까지. 마치 기자단 자격 요건에 이런 내용이 있나 의심이 들만큼, 자신의 꿈을 찾아 과감한 도전을 시도한 이력들이 소개되었다.

“불안하지 않아?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 그녀들의 그 과감한 도전들이 빛도 못 보고 좌절되면 어쩌나.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그녀들은 어쩌자고 이리 순진하기만 한 건가. 그런데 이 걱정 어린 물음에 대한 대답이

허탈하리만큼 참 짧다. “해보고 정 안되면 취업이든 뭐든 해야지요.” “어떻게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니. 20대 그녀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너무 가벼운 대답 아닌가. 그렇다고 20대들이 처한 치열한 경쟁과 무거운 부담을 무시하고 지내도 좋을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그녀들이다. 혹시 안 되면 결혼이라도 할 요량인 건가? “언젠가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결혼하면 여자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앞뒤 크게 재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무모함 혹은 그 가벼움은 분명 20대 청춘의 특권이기도 하다. 불안정한 미래와 치열해져만 가는 경쟁구도 속에서도 그 압박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되묻고, 실패하더라도 미련을 남기지는 않겠다고 청춘의 특권으로 답하는 그녀들의 씩씩함과 대책 없음에 박수를 보낸다. **W**



그들도 드라마처럼



중편 주말연속극으로 방영되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무자식상팔자>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좌절과 상실의 시대를 견뎌낼 힘은 역시 가족에 있다는 메시지로 긍정과 지지의 글들이 넘친다. 가부장적 권위 질서의 대가족을 배경으로 한 김수현 표 드라마는 그간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가족주의 정서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폭넓은 사회적 동의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번 드라마가 관심을 받는 것은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니다.

은퇴자들의 무료한 일상과 노후 고민, 가사노동의 부부 분담과 경제적 평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풍속, 그로 인한 세대간 갈등 등, 한 마디로 가족을 둘러싼 2010년대의 모든 문제들이 드라마 속에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문제 그룹’으로 조사된 (동성애자와) 미혼모의 존재를 드라마의 초반부터 중심에 포진하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당사자를 똑똑하고 소위 잘 나가는 전문직 엘리트 여성 판사로 설정함으로써, 미혼모가 행실이 좋지 않은 저학력의 미성숙한 여자로서 보는 사회 일반의 오랜 편견에 도전한다.

“무책임한 남자 만났거나 남자가 죽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미혼모야. 좋아서 즐거워서가 아

니라 차마 뱃속의 아이 죽이는 짓 할 수 없어서 미혼모란 말이야. (...) 모두 미혼모 아닌 여자들보다 몇 갑절 열심히 죽도록 일해 아이 키워내. 사회적으로 백안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 미혼모는 범죄가 아니야! 위법도 아니야!”

아들의 연애를 통해서 보여주듯, 우리 사회에 혼전 성관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딸이 겪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부모와 형제의 체면 손상을 이유로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해 철저히 고립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드라마도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곧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부모는 미혼모가 된 딸에게 이전에 가졌던 신뢰와 애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아들의 자유로운 연애에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양육 미혼모 당사자인 딸은 당당하게 자기 문제에 직면하며 비슷한 처지의 미혼모들의 권익을 지원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말이다. 이제까지 여러 드라마에서 미혼모 문제를 다루긴 했으나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 가두고 문제를 사회화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이 드라마는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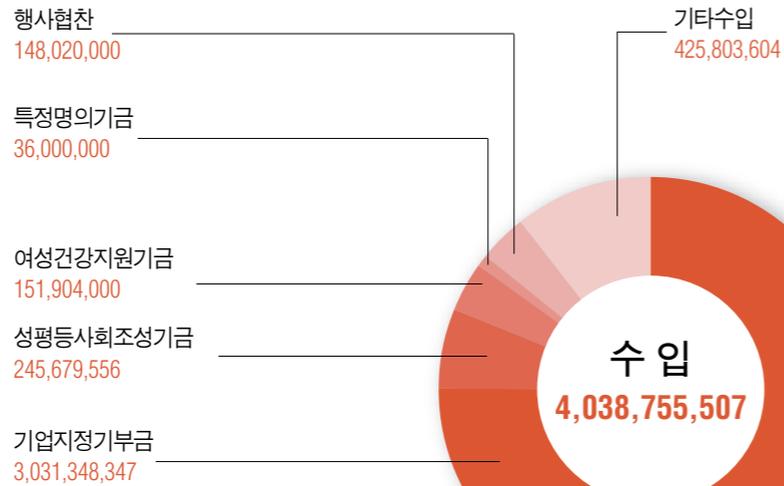
가족해체의 시대, 드라마의 가족에도 부부간, 부모 자녀간 해체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지만 가족은 흔들려도 해체되지 않는다. 여성(딸, 아내, 어머니)의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에 기대서가 아니라, 남녀, 세대를 불문한 구성원 개별의 인격과 경험이 다양하게 살아 있는 조합적 실체로서 그 근본 성격을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어느 샌가 삶의 문화적 태도를 소통하는 유효한 매체라고 했던가. 이 드라마를 통해 내 이웃의 양육미혼모들과 변화된 세대 속에서 등장할 못 소수자들의 운명이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토론되기를, 그리고 드라마처럼 따뜻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W**

수입

기간 : 2012.1.1 ~ 2012.12.31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금 액 |
|--------------|---|----------------------|
| 기업지정기부금 |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물품기부 등 | 3,031,348,347 |
| 성평등사회조성기금 |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 245,679,556 |
| 여성건강지원기금 |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 151,904,000 |
| 특정명의기금 | 고사리손기금, 애경산업기금 등 | 36,000,000 |
| 행사협찬 |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행사협찬 | 148,020,000 |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 425,803,604 |
| 총수입 | | 4,038,755,5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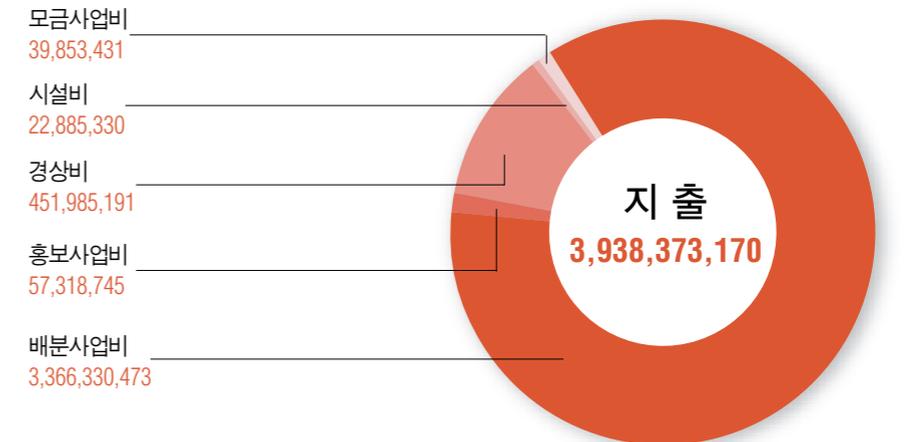
지출

기간 : 2012.1.1 ~ 2012.12.31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금 액 |
|--------------|---|----------------------|
| 모금사업비 |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 39,853,431 |
| 배분사업비 |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사리손기금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CJ) · 날자 프로젝트-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행복스타트-사회적응,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정사업본부) · 다문화가정 자녀 1:1 희망 멘토링 (LGI노텍) · 다문화가정 아동 리더십개발 멘토링 (의환은행나눔재단) · BB희망날개-다문화가정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주)NHN 농산촌지역 아동도서관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짧은여행 · 긴호흡, 도움닫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여성NGO정착사업 (유한킴벌리, 상지대, 성공회대) · 시설개보수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기업지정사업 등 4. 사회적 돌봄사업 ·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3,366,330,473 |
| 홍보사업비 |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 57,318,745 |
| 경상비 |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 451,985,191 |
| 시설비 | 건물유지관리비 등 | 22,885,330 |
| 총지출 | | 3,938,373,170 |

※법인결산 진행시 자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아동 리더십 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는 글로벌 리더! | CAN DO!' 수료식

지난 2012년 11월 17일 외환은행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아동 리더십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는 글로벌 리더! | CAN DO!' 프로그램 참여자인 다문화가정 자녀 40명의 수료식이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서울, 안산, 청주, 대구 등 4개 지역의 특성 및 사전 욕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개인별 특성에 맞춰 운영된 본 멘토링 사업의 특색에 맞게, 이날 활동사례 발표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활동들에 대한 소감과 아쉬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다문화정책포럼 -기업사회공헌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 다문화 정책 및 방향

올해로 6년을 맞이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프로젝트 <날자> 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11월 27일 플라자 호텔에서 마련되었다. 이 포럼에는 2007년부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삼성생명의 광상용 부사장과 여성가족부의 김금래 장관, 기업 관계자, 결혼이주여성모임 또는 지원단체 활동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본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미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는 친정방문 사업이 한국가족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본국의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을 한국 가족정책의 미래 비전 안에 통합하고 글로벌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발표 외에도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 호앙 바 틴(Hoang Ba Thin) 교수를 비롯하여 기업, NGO, 정부 관계자 등 다문화가정과 연계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자녀 21명, 2012희망멘토링 수료

지난 12월 1일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에서 2012년도 희망멘토링 참가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희망멘토링은 LG이노텍의 후원으로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LG이노텍 임직원 코칭을 활용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전인적 발달 및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다문화적 요소의 긍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 파주, 오산, 안산, 청주, 구미, 광주 지역에서 멘토와 멘티, 멘티의 가족 9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활동 내용을 되돌아보고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100인 기부 릴레이는
4월에 진행됩니다

2012 날자 최종 보고회

지난 12월 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지원사업 <날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33가족들이 다시 함께 모여 <날자> 사업에 참여한 소감과 평가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친정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했다는 이주여성들의 소감과 함께 친정방문을 통해 아내가 겪어야 했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사위노릇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남편들의 소감 속에서 친정방문 이후 달라진 가족들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유한킴벌리 여성·유아생활용품 물품나눔

기초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여성그룹홈과 쉼터들을 위해 유한킴벌리에서 여성생활용품 550박스, 유아생활용품 1300박스 분량의 물품을 후원하였다. 후원된 물품은 2012년 연말에 전국여성쉼터 및 여학생그룹홈, 이주여성쉼터, 미혼모자가정 등 약 670여명에게 전달되었다.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 선정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2013년도 파트너 단체 및 사업이 지난 12월 28일 선정·발표되었다. 자유공모사업에 12개 사업, 성평등 정책기반 마련을 주제로 한 기획공모사업에 2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오는 1월 29일 파트너 단체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2012 시설개선사업 완공

한국여성재단이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한 여성생활이용 시설 및 비영리여성단체 시설개선사업의 2012년 마지막 오픈식이 12월 13일 한국여학사협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의 이우동 상무는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된 공간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여성생활·이용시설 및 비영리여성단체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통할 수 있는 여성 대안공간을 창출하는 시설개선 사업은 2012년 총 10개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다.



다문화지원사업 전문가 간담회

지난 12월 13일 한국여성재단 교육장에서 다문화지원사업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재단 다문화 소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와 황정미 고려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과 이창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가 참여하여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사업 현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은 2013년 다문화지원 사업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2 다문화가정 행복스타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개최

우정사업본부 후원으로 진행한 2012년도 다문화가정 행복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최종보고회가 12월 12일 한국여성재단 1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2012년 21개 지역에서 진행된 25개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기획과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육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한 2012년도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육사업 최종보고회가 12월 29일 열렸다. 본 사업은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북 봉화 하모니, 전북 완주 고산향교육공동체, 충북 제천 YWCA 등 5개 지역 단체들이 수행하였으며, 이날 보고회를 통해 가정파견 보육 및 8개 아동돌봄센터가 모여 한해 동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웃고 질문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봄빛장학사업

한국여성재단이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기금으로 특히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7월 제1기 장학생 12명이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지난 1월 14일 한국여성재단 회의실에서 제1기 장학생 모임을 갖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장학생들은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어렵게 시작한 학업을 중단할 뻔 하였으나 장학금 지원 이후 안심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힘이 난다며,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발전을 부탁하였다.

우리 딸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세요.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 는 기치로 각계 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한국여성재단의 모금과 지원사업의 정보와 소식을 담은 소식지 및 뉴스레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재단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는 방법

국민은행 079-01-0405-971 | 농협중앙회 369-17-005283 | 예금주 : (재)한국여성재단

고사리손기금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시아의 빈곤과 질병,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래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2013년에는 필리핀 보홀 긴급지원센터 BCIC에서 보호받고 있는 폭력 피해 소녀들의 교육비(교복, 학용품, 학비 및 교통비 등)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기금은 어른들의 매칭 펀드를 통해 두 배로 키워져 지원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나눔의 즐거움' 을 경험하고 아시아의 또래 친구들은 '나눔이 주는 따뜻함' 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 02-336-6463 www.womenfund.or.kr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